



질문

당신의 신앙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질문해 보기를 권한다.

신앙과 신앙의 내용 그리고 신앙행위에 대한 의문을 교묘하게 질타하고 질문을 적당히 깔아뭉개며 회피하는 태도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무지와 빈약함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와 우리의 신앙, 신앙의 내용 그리고 신앙행위라는 것을 각자의 책상 위에 올려서 점검하고 묻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좋은 질문은 그것 자체로 최선의 답을 품고 있기 마련이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다.



서정범 요한 신부 | 삼천포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화 답 송
제 2 독 서
복 음

다니 7,9-10,13-14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2베드 1,16-19

마태 17,1-9



김대건 신부 기념성당 성전

미리내 성지에서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그들은 왜 깊은 계곡으로 갔을까
그들은 왜 밤마다 별을 수 놓고 있었을까
아, 우리는 안다
그것이 하늘에 닿은 길이란 걸
새남터 임의 정체
산을 넘던 날
한 줄기 빛 눈물처럼 쏟아지고
보석처럼 영롱한 하늘의 별빛
그들이 가는 길 비추니
산은 깊고 초목은 우거져
길 잃은 양
미리내의 깊은 늪에 빠지는구나
우리는 계곡을 따라 걷는다
오늘 밤 은하수가 뜨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미리내 성지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리내'는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와 점점이 흩어져 살던 천주교우들의 집에서 흘러나온 호롱 불빛과 밤하늘의 별빛이 많은 시냇물과 어우러져 보석처럼 비추이는 모습이 은하수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아름다운 우리의 옛 지명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묘소와 김대건 신부에게 부제품과 사제품을 준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을 고주교, 미리내 초대 본당 신부 강도영(마르코) 신부, 최문식(베드로) 신부의 묘소가 있으며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인 고고 우르술라의 묘소와 <무명순교자의 묘역>이 있는 거룩한 성지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과 한국천주교 103위 시성 기념대성전, 성모당 등이 순례자의 발길을 잡고 있다.



103위 시성기념대성당



성요셉성당(뒤), 순교성인 복자상

신학의 장場: 교회-성당? 교회? 다닙니다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한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 넓게는 비종교인들까지 일상 안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 ‘교회’는 ‘개신교’를 지칭하고, ‘천주교’는 ‘성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렸으니, 종교적 표준을 따라 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개신교는 ‘예배당’ 천주교회는 ‘성당’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논쟁의 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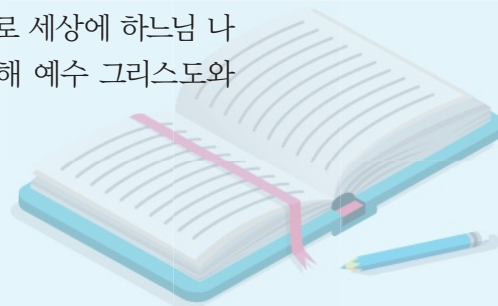
저는 이 논쟁을 조금 달리 보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 혹은 ‘성당’이란 낱말에 담긴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장場이 바로 ‘교회’이자 ‘성당’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教會는 말 그대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 곧 신앙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라틴어 ecclesia(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므로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성당**聖堂은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은 우리가 성경이나 성전聖傳에 의거해 정식으로 공인한 의례, 즉 전례(典禮, liturgia)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성당은 ‘거룩한 행위를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알맞은’ 거룩한 건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현실에 대한 표지와 상징’(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8항)이고,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교회법 1214조)로 기도하고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당’이건, ‘교회’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창조질서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준비되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세상 종말에는 모든 인류가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여 완성될 하느님 백성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정사적 선물**’이며, 이런 의미의 교회를 신학은 세상 속의 교회이자, 세상으로 파견된 교회임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장場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이고, 신학은 이 교회가 믿음을 더 분명하고 깊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이자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결합하고, 그분의 몸과 피로 양육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0

진주지역 교우촌(2)

1894년 동학란東學亂을 겪은 조선정부는 이듬해(1895년) 진주를 목牧에서 부府로 승격시킨다. 유화책이었다. 관할구역은 68개 면面이었고 소촌면召村面은 그중 하나였다. 1910년 조선을 합병한 일본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다. 전국을 시군市郡과 면동리面洞里 체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1914년 실시된 일이다.

이때 진주는 군郡이 되고 휘하에 19개 면을 두게 된다. 문산면文山面은 이때 처음 등장했다. 소촌면, 조동면槽洞面, 이곡면耳谷面, 갈곡면葛谷面을 합쳐 문산면으로 개칭한 것이다. 이 조치로 소촌召村이란 이름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1914년 이전까지만 소촌이었고 그 뒤엔 문산文山으로 대체된 셈이다. 소촌이란 글자를 풀이하면 누군가를 부르는 동네다. 누굴 불러내는 동네였을까?

당시 소촌면은 진주로 들어가는 관문이였다. 그래서 이곳엔 찰방察訪이 거주하고 있었다. 찰방은 지역 도로와 정보를 책임진 자다. 요즘으로 치면 국정원과 도로공사 지사장을 겸임한 인물이다. 서울과 지방을 잇는 주요 도로엔 역참驛站 시설이 있었는데 수십 필의 말馬과 관원이 찰방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경상도에 찰방이 11명 있었고 서부 경남엔 소촌이 유일했다. 그러니 진주 양반들은 소촌 찰방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민심 파악이나 한양 소식에 접하려면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촌 찰방은 진주는 물론 남해, 고성, 통영, 거제, 진해(現 진동) 등 인근 15개 역참驛站을 직접 관할했다고 한다.

한편 찰방을 도와 일하던 하급 관리가 아전衙前이다. 아전은 대개 지역 사람들이 맡아했다. 그래서 향리鄉吏 혹은 이속吏屬이라고도 했다. 찰방은 바뀌어도 이들은 잘 바뀌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대대로 아전에 종사하는 게 상례였다. 따라서 자부심이 대단했고 나름대로의 세력도 갖고 있었다.

소촌은 이런 배경을 안고 있는 마을이였다. 양반 간섭이 적었던 만큼 자유롭고 활기가 넘쳤다.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일자리도 많고 먹거리도 풍족했다. 피난 교우들 역시 이런 연유로 소촌과 인근 지역에 교우촌을 형성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피난 교우들이 살고 있었을까? 소촌공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로베르(Robert 김보록) 신부의 1883년 보고서가 처음이다. 이 기록은 로베르 신부가 직접 소촌공소를 방문하고 성사를 집행한 뒤에 남긴 것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신자 수 78명, 예비자 22명, 판공성사 본 사람은 62명이다. 이 정도 교세라면 오래전부터 교우들이 있었다는 증거다. 한편 리델(Ridel 이복명) 신부가 1861년 입국할 때 지참했다는 교우촌 지도에도 소촌은 등장한다. 따라서 병인박해 이전부터 이 지역엔 교우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뿌리는 정해박해를 피해 온 교우들일 것이다. 1827년 전남 곡성에서 시작된 정해박해는 신자들을 지리산과 덕유산 쪽으로 몰았고 많은 교우들이 함양과 산청 쪽으로 피신해 왔던 것이다.

그들은 남해안까지 퍼져 내려갔다. 서부 경남 일원에 교우촌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특히 해안지와 인접한 곳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에 숨을 곳이 많았다. 바닷가에는 여인들도 당당히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자 타 지역 피난 교우들까지 모여들었다. 그러다 병인박해와 무진박해를 겪으면서 소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판단되어 교우들이 집단으로 이동해 왔을 것이다.

어느 일요일 아침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파스칼 메르시어가 지은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나오는 말이다. 어두운 밤을 달리는 야간열차는 우리의 인생을 축약하는 것 같다. 어느 날 문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자들, 일상의 삶, 평온한 나만의 시간, 안정된 주거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인공 그레고리우스는 야간열차에 몸을 싣는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는 식빵 한 조각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시골 간이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시골버스는 시간이 어정쩡해서 조금 일찍 오기도 하고 또 늦어지기도 한다고 누가 귀뜸을 해준 터라 이십여 분 일찍 나가 기다렸다. 읍내까지 요금은 천 원. 이미 지난번 같이 버스를 기다렸던 노인들에게서 차비가 천 원이라는 말을 듣고 꺼내 놓았던 카드를 도로 집어넣고 지폐를 꺼냈다. 삼십여 년간 승용차를 타고 다녀서 버스 요금을 잘 몰랐다. 버스 타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버스 유리창 밖으로 먼 능선과 산맥이 언덕과 들판이 작은 숲과 계곡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동안 볼 수 없던 풍경을 만나며 새로움과 신선함,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늘 보아오던 풍경인데도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장면은 남다른 신비와 낯센과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래지던스 창작촌에서 읍내 성당까지는 25리 되는 거리였고 20여 분 정도 걸렸다. 낯선 성당에 발을 들인 순간 익숙한 분위기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공동 묵주기도에 이어 화답송과 성가 연습까지 전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익숙해서 기시감이 들었다. 오래전 여행했던 로마와 스페인, 상해 성당에서도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의 성당에서도 신비로운 감정에 취했던 일이 있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소도시에서도 같은 전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가사의했다. 그것을 통해 가톨릭의 보편적이고 일치를 이루는 미사전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마침 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이라 성모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고 수건을 선물로 받았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십분 이십 분... 버스는 오지 않았다. 혹시 시간을 잘못 보았나 싶어 메모해 놓은 시간표를 들여다봐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일요일이라 운행을 안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택시를 타야 하나. 택시비가 몇 만 원은 나올 텐데 그러며 뜨거운 유월의 햇볕 속에서 있었다. 삼십여 분이 지나 거의 포기할 즈음 버스가 왔는데 목적지를 확인하고 올라탔다. 하루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았다. 열린 버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날 때마다 힘들었던 시간이 위무되는 것 같았다. 연둣빛 반짝이는 잎사귀들, 이름 모를 꽃들,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과 푸른 하늘,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 떼... 땅을 밟고 다닐 때와 다른, 버스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먼 다른 세계를 떠올리게 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한순간 손에서 탁 놓아버리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으로 채운 것이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자기 생이 끝까지 갈 것 같은 환상도 죽음의 날 옆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잠언도 내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과 푸르른 산하 속에서 몽환적인 색채로 지워져가고 있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태식(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부제
1969년 8월 10일

교구장 서리 동정

성경교육봉사자 임명식 및 개강미사
일시: 8월 12일(토) 11:00
장소: 교구청

교구/본당

전국 관리국장회의

일시: 8월 9일(수)
장소: CBCK

전국 사무처장회의

일시: 8월 10일(목)
장소: CBCK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첫 파견자연수

일시: 8월 8일(화) 09:3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임명식 및 개강미사

일시: 8월 12일(토) 11:00
장소: 교구청

여름캠프-중고등부

일시: 8월 11일(금)~12일(토) 1박 2일
장소: 양산청소년캠프장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상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도박문제로 힘드시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 정)

기타

성골로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8월 13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4050 신앙대회

일시: 8월 20일(주일) 10:00~17:00
장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대경당(부산)
주최: ICPE 선교회,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문의: 010·2289·6150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8월 26일~28일/ 9월 3일~5일/ 9월 16일~18일
성지순례: 9월 10일~13일/ 10월 7일~10일/ 10월 15일~18일
연말연사: 12월 29일~2024년 1월 1일(해님, 해돋이, 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8월 27일~29일/ 9월 1일~3일/ 9월 8일~10일/ 9월 16일~19일(추석도)
9월 23일~25일/ 10월 1일~3일/ 10월 7일~9일/ 10월 12일~14일
연말연사: 12월 30일~2024년 1월 2일(해님, 해돋이, 눈꽃산행)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8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창원파티마병원 수녀원 주방 직원 모집

모집: 파티마병원 수녀원 주방 근무자 1명
접수: 8월 20일(주일)까지
문의: 파티마병원 055·270·1968, 010·7208·5113
▶면접일자 및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구	8월 7일(월) 19:00	중앙동성당	건강해지고 싶어요(요한 5,6)	신상옥 안드레아(서울대교구)	진동길 마리오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인스타그램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검색하세요.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지도) 성지순례 모집
매주 월요일·화요일 출발 34만원부터
■해외 성지순례 모집
스페인·포르투갈 11월~2024년 1월 5일~15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소품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519만원(+1,800유로, 9월 17일)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배네틱토
055,757,9888~9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19

공소 순례 소감문

안혜경 헤드빅(사림동본당)

고대하던 마산교구 2차 공소 순례를 예구공소를 시작으로 6월 14일, 21일, 28일 매주 수요일마다 순례하였다. 그리고 23번째 웅천공소를 마지막으로 순례하였다.

6월 21일은 사랑공소, 욕지공소 등 5개 공소를 다녀왔다. 욕지공소는 예술 작품으로 마음이 너무 행복하여 배 시간이 아니면 십자가의길 기도도 하면서 오래 머물고 싶었다. 욕지도를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욕지공소는 전교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6시가 넘어 창원으로 오는 길이었지만, 고성 배둔공소와 수정공소를 순례하였다. 배둔성당이 라고 새로 단장된 공소에선 비밀번호로 되어있어 헛걸음치지 않고 순례할 수 있었다. 수정공소에는 시간이 더 늦어졌다. 염치 불고하고 공소 회장님께 미리 전화를 드렸더니 불까지 환하게 켜놓고 가셨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가 피해 가며, 안전하게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큰 기쁨도 느끼며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공소에선 기쁨이 두 배였다.

거제 가배공소에서는 모두 마음이 아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소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시어 앞으로 공소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적어질 텐데...'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공소에 걸려 있는 어르신들 사진을 보며 하늘 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도 있을 테지 하며,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렸다.

교구청 직원분들과 우리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공소는 더 나은 여전이 되리라고 희망한다. 더 불어 공소를 지키다가 먼저 떠나가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본다.



대방동본당 ME 가족 나들이



대방동본당(주임: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ME 가족들은 7월 22일 가족 나들이를 실시하였다. 이날 나들이에는 본당 사제와 11부부가 참석하여 고성본당 배둔공소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신축 교구청에 방문하여 투어를 하였다. 3년간의 코로나19로 본당 활동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ME 가족들은 이번 나들이를 통해 부부간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부부사랑을 통해 대방동본당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교구 ME 주말 218차(7월 21일~23일)에 정규대·김명희 아녜스 부부가 참가하여 대방동본당 ME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ME 가족들은 부부를 열렬히 환영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

최 사비오 수녀(교구 교정사목 담당)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교구에서 교정사목 소임을 하고 있는 최 사비오 수녀입니다.

제가 이 소임을 받아 생활한 지가 이제 삼 년여의 시간이니 길다고 할 수는 없는 기간입니다. 처음 부임해 왔을 때는 코로나가 극심할 때라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지만, 점차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미사, 레지오, 성가대 연습, 교리 등의 모임이 한 가지씩 열려서 그전 같지는 않아도 활기를 느끼며, 이제는 제법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교정시설에서 미사 전이나 따로 주어진 교리 시간에 예비신자 교리를 하고, 함께 미사에 참여하며 형제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조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비신자 교리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나눌까 합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교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라는 것을 힘주어 안내하면 대부분 형제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설렘, 기대가 반짝이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풍경도 있는데 목요일 오전 9시 창원교도소 천주교관의 예비자 교리 시간입니다. 6~7평 남짓 될까 싶은 공간에서 신부·수녀 세 명이 최대한 멀찍이 배치되어 각각 두서너 명씩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다른 이의 목소리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최대한으로 열중해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웃음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7~80분 동안 열정을 쏟아붓고 발강게 상기된 얼굴로 교도소 문을 나서는 저희들의 가슴에는 뭔지 모를 벅참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보람이고 뿌듯함이라 싶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말씀이 성령의 속삭임이 되어 마음을 어루만지면, 투박한 형제들의 눈빛은 사랑에 들뜬 소년처럼 됩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사람이 되어 은총 안에 살 고자 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모습은 저로 하여금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하고, 어느덧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담아 보내온 한 형제님의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녀님께 글 드립니다.

신앙으로 얻은 축복을 불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세례자, 요셉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지난 잘못된 선택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자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큰 깨우침으로 알아듣습니다.

하느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기도를 배웁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바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요셉'에 감사드립니다.

모자람 많은 삶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 29일 세례자 ooo 요셉 드림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